

지역 소식통

김제농기센터, 병해충 집중 방제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이상으로 연일 지속되는 강우와 흐린 날로 인해 벼의 병해충과 도복을 발생시키고 수량감소,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병해충 집중 방제에 나섰다.

김제시는 올여름은 7월부터 지속되었던 장마로 인해 벼가 연약하게 자라고 우자라 생육은 좋게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많은 도복이 발생하고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중점 방제 기간을 정해 오는 9월말까지 현장지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잦은 강우와 강풍으로 조생종 벼에서 도복이 발생하였는데 도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둘러서 논물을 빼주고 수발아 방지를 위하여 잡대 등을 이용한 벼 뒤적임 작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아토피 자조모임 실시

김제시보건소는 지역사회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실시한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공유 및 정서적 지지를 돕기 위한 아토피 자조모임은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친환경용품 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 보건소는 아토피피부염 자조모임 이외에도 취약계층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 시민교육 및 일일캠프 진행, 4개소 안심기관 운영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조모임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540-1321 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김제시는 29일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김제경찰서 및 교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학교주변 안전관리자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9월 한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김안아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내지역 4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들을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청년 고용프로젝트 '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서... 취업률 2배 달성 우수성 입증

완주군의 '청년 고용프로젝트' 사업이 고용노동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

29일 완주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부문에서 '완주군 청년 고용프로젝트' 사업이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 달 진행된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된데 이어 사업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다.

완주군의 청년 고용프로젝트는 관내 지역기업의 현장을 이해하고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해 청년 우수인재 채용연계를 시켜주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지역고용협의회 구성과 기업체 설명회, 청년 일자리 세미나, 현장 채용 취업캠프 등을 활발히 진행해 목표대비 2배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며,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완주군이 수상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은 전국



완주군의 '청년 고용프로젝트' 사업이 고용노동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에 추진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심사해 30개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그 중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사업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시 우선권과 지

방비 매칭을 50% 보전 받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청년 예비취업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청년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품질 최고' 김제쌀, 러시아에 알린다

육정영농 백미 18톤 사할린에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김제쌀이 이번에는 세계에 이름을 알린다.

김제시 부랑면에 위치한 (유)육정영농(대표 김성용)은 러시아 사할린에 백미 18톤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8월 28일 상차, 30일에 출항할 예정이다.

육정영농은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체로 연간 130억, 6500여톤을 국내유통하고 있으며 국내 쌀값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서도 고강도 품질관리 및 판로개척을 통하여 수출하게 되었으며 마트, 식당 등에 소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량은 4kg, 10kg포장 단위로 약 3천개 18톤이며 이를 계기로 수출확대 등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성용 대표는 "김제쌀을 알아봐 줘서 고맙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정범 부랑면장은 "대부분 주



김제시 부랑면에 위치한 (유)육정영농은 러시아 사할린에 백미 18톤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8월 28일 상차, 30일에 출항할 예정이다.

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랑면의 면장으로 어떻게 해야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논콩 등 타작물 전환도 일한 이었고,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도 하나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며 행정에서 지원할 것들이 없지 않지 않을까 싶어졌다."고 밝혔

다. 한편 김성용 대표는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꾸준히 해왔으며, 육정영농에서 생산되는 쌀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 온프라이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시티투어 '첫 시동'

내달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정기 운행

완주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완주 시티투어'가 첫 시동을 건다.

29일 완주군은 내달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완주 시티투어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완주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정기적으로 출발한다.

삼례역 인근에 위치한 완주관광안내센터를 출발해 대한민국술대박물관, 대승한지체험마을, 삼례문화예술촌을 탐방하는 코스로 주요관광지를 단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요금은 3,000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동승해 완주군을 비롯

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부가설명을 전문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정규코스 이외에도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객이 희망하는 출발지로 직접 찾아가는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예약은 완주관광안내센터(063-290-3934)나 완주관광지원센터(063-290-3930~3)로 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시티투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객 만족도 조사, 노선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관광객이 완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

완주군이 가스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가스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완주군은 내달 10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230세대를 대상으로 '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 체결 후 시민층의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비용부담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층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을 통해 완주군은 LPG사용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록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미리 설정한 가스 사용시간이 경과하거나 위험은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가스타이머를 설치해 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억원을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3,549세대에 가스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취약계층 전 세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가스 및 화재사고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제종자박람회 지원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제시가 29일 행정지원계획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실무위원회는 김제시가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공동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동수행기관(농림식품부, 전북도)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체계적이고 누수 없는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김제시에서 점검한 박람회 지원사항은 크게 국제종자박람회 홍보, 행사기간 중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및

주차장 관리지원, 박람회 주변 정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유관기관인 김제경찰서와 김제소방서등과 협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10. 26. ~ 28(3일간) 개최되며, 3ha 규모의 전시포와 주제관, 홍보관, 산업관,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국내종자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해 국내 종자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